

삼성, 전장산업 등 180조 투자 ‘자동차 도시’ 광주는 수수방관

지자체들 앞다퉀 유치 경쟁
전장산업 공약 했던 광주시
구체적 계획 없이 소극대처

삼성전자가 180조원대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지자체들이 앞다퉀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도, 광주시는 구체적인 유치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 전장산업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는데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정치적 대응까지 못하면서 다른 광역단체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180조원 규모(국내 130조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광역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각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국내 굴지의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신규 투자 발표는 '기쁨의 탄비' 같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삼성사의 투자 계획에 따라 4만평가량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 전국 지자체가 앞다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자동차 전장산업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전자-IT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텔레매틱스, CID(중양정보디스플레이), HUD(헤드업디스플레이), 차량용 반도체 등 쓰임새가 무궁무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이 미래 성장 사업으로 발표하고 투자 계획을 밝힌 반도체와 바이오 등은 대부분 팹택, 인천 등 수도권에 기존 삼성의 생산거점이 밀집해 있어 사실상 여타 지자체들은 자동차 부품에 총망라하는 전장부품 생산기지를 놓고 한 판 유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삼성의 전장부품 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 국내 지자체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지역에 현재 조성돼 있는 관련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존 산업 기반과 삼성의 투자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 관련 산업 기반이 탄탄하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도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된 빛그린국가산단에 전장부품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시급한 것도 국가계획으로 국비 등이 투입되면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내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 광주의 전장부품산업 조성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1906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때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민간 기업의 투자도 뒤따르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삼성의 전장사업 광주 유치에 손을 놓은 모양새다. 과거 의욕적으로 전장 산업 유치를 뛰어오르던 광주시는 최근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과 도시철도 2호선, 산하 기관장 인사 등에 집중하면서 삼성 투자 유치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장 산업 광주 유치를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관련 특별위원회까지 꾸렸던 민주당도 선거 이후 정치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상무를 지낸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광주가 친환경자동차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장산업 클러스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경제계, 정치권이 협력해 전장산업을 광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소녀상 앞에서 추모공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 광주시 서구청 평화의 소녀상앞에서 광주시립창극단의 추모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최혜민 기자 choi@kwangju.co.kr

광복 73주년 광주·전남 기념 행사 다채

광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정오에 민주의 종 기념 타종
전남, 함평출신 독립운동가 김철 선생 기리는 경축공연

광복 73주년을 맞아 15일 광주와 전남에서는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는 15일 정오 민주의 종각에서 광복절 기념 민주의 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타종은 독립운동을 펼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마음과 광복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73년 전 그날 광복의 함성을 일깨워 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올해 타종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 교육감, 독립유공자와 후손, 2018년 시민대상 수상자 등 16명이 참여해 8명씩 2개조로 나눠 총 33번 타종하게 된다.

타종에 앞서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순국선열의 뜻을 가슴에 새기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광주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열린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식'을 한다. 이날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고(故) 김한필 선생은 건국포장을, 고 박동준 선생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극단 갯물은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 선생을 기리는 경축공연을 한다. 김철 선생은 함평 신광면 출신 독립운동가로 3·1운동을 주도하고 임시정부에서 군무장·재무장·국무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일평생 항일투쟁을 했다.

전남도는 부대행사로 1층 윤선도홀에서 도민 하나의 마음 프로젝트 '조각보 잇기', 항일투쟁 그림전, 무궁화 나무 및 그림 전시 등을 마련했다.

한편, 강진 출신의 영광 김윤식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는다.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시로 유명한 민족 서정시인 영광 김윤식 선생(1903~1950)은 15일 열리는 국가보훈처 주관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경축행사'에서 정부 포장을 받는 독립유공자 177명 명단에 포함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현대차 협상에 한국노총 참여

완성차 공장·합작법인 설립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겨냥'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적용을 통한 완성차 공장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벌이고 있는 협상에 한국노총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노동계의 반대로 협상이 지지부진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노동계 겨냥'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시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지난 8일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제시한 두 가지 제안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광주시에 제안한 것은 현대자동차와 그동안 진행된 협상 내

용 공개, 투자협상 과정 노동계 참여 및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투자협약 포함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협상 내용은 이미 공문을 통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에 전달했으며, 두 번째는 투자협상 과정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고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투자협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지금 광주는 함께 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 팍팍해서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으며, 외지 투자자들은 투자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이유로 광주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시의 노동계 요구 전면 수용으로 노사민정이 재가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민선 6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3월 7일 노사민정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 6월 7일 현대자동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후 현대차와 협약 체결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노동계 일부가 임금 수준 향상과 경영 참여 등을 요구, 이후 파열음이 났었다.

이 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선 직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들 각각 찾아 협조를 당부했으며, 취임 이후에는 투자협상 체계를 새롭게 구성해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에 입각한 투자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는 "시는 시민의 이익과 광주발전만을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노사상생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전라도 1000년 인물열전
-진도 남종화대가 소치 허런 ▶18면
KIA 외국인 3총사 엇갈린 기상도
-버나디나 맑음·헥터 팻턴 힘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소문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1톤), 복합회합유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